

기초임상실습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비판적사고 및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서인순¹, 오수민¹, 최동원², 박희옥¹, 마에원^{*}
¹수원여자대학교 간호보건학부 간호과, ²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Effects of Basic Clinical Practice Program in Academic Motivation,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In-Soon Seo¹, Su-Min Oh¹, Dongwon Choi², Hee-Ok Park¹ and Rye-Won Ma^{1*}

¹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Incheon Catholic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교내 기초임상실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동기, 비판적 사고 및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기초임상실습 프로그램은 2주간 30시간의 과정으로 핵심기본간호술과 필수간호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는 첫 임상실습을 앞둔 228명의 간호대학생이었고 프로그램 전후에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 이었다. 연구결과 비판적사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동기의 하부영역 중 우울과 시험불안은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학업스트레스는 감소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은 전 영역에서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초임상실습 프로그램이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수행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중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초임상실습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운영기간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basic clinical practice program(BCPP) on academic motivation,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nursing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irty-hour BCPP was consisted of the essential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and prior education in nursing lab before first clinical practice. The participants were 228 nursing students and data was collected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uring Feb. 18 to Feb. 28, 2013. Study design was one group pre-post test. BCPP was not related with critical thinking.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subcategories of learning motivation like academic stress, test anxiety, depression and self efficacy, and in clinical nursing competence. The results suggest that BCPP is effective to enhance clinical competence for novice of nursing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Academic motivation, Critical thinking, Clinical nursing competence

1. 서론

으로, 간호사는 지식, 기술, 태도의 효과적인 적용을 보여 주는 수준의 수행능력을 가져야 한다[1].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인간 자체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내적, 외적 환경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전문직 학문

최근 간호교육은 국내외 보건 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학습성과 기반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2], 임상현장의 다양

본 논문은 2013년도 수원여자대학교 순수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Rye-Won Ma(Suwon Women's Univ.)

Tel: +82-31-290-8278 email: kenzo1201@naver.com

Received March 21, 2014

Revised (1st April 1, 2014, 2nd April 7, 2014, 3rd April 9, 2014)

Accepted April 10, 2014

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사 핵심 역량(core competence) 즉, 전공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 응용능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윤리적 책임인식능력, 리더십 능력, 연구 이해 및 수행능력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있다[3].

미래형 교육과정은 범교과 차원에서 핵심역량 위주로 진행되며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과 학습동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행동과 이와 관련된 전략이다[4]. 학습역량 중 학습자의 준비와 동기유발은 필수적 요소로 [5], 동기 부여된 학습자들은 좀 더 도전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활동적으로 참여하며, 학습을 위한 깊이 있는 접근을 즐기고, 높은 성과, 지속성, 창의성 등의 성향을 갖는다[6,7].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 핵심역량을 이룩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타당한 기준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결과를 얻고자하는 사고능력으로 간호학생이 대학 과정 동안 성취해야할 핵심적 요소이다[1,8]. 간호교육의 목표는 간호학생이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비판적 사고 중심으로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태도를 함양하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 향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8,9]. 이에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여 임상에서의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임상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간호교육과정 중 임상실습은 간호사 핵심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론으로 습득한 지식과 개념을 실제로 간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9,10]. 간호학생은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 및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임상수행능력을 습득하게 된다[10].

국내의 경우, 병원은 간호학생의 실습교육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습교육 제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 국외의 경우, 간호 관련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임상실습교육 기관, 교육내용 등이 검증되어 교육의 질이 확보되어있다[11]. 또한 임상실습은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습과정에서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은 많은 스트

레스와 부담감을 갖게 된다[12,13]. 최근 환자의 안전과 권리가 강조되면서 임상실습교육이 관찰중심 교육으로 제한됨에 따라[14] 간호학생들은 이론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경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에 대한 자신감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학생들의 교내 실습교육 내용을 평가하고 임상 현장 실무 사례를 반영한 임상실습준비 과정으로 현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임상실습에 임할 수 있는 교육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15,16].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상실습 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역량으로 구성된 교내집중실습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술기 연습만이 아니라 임상사례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간호술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구조화된 이론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 몰입하게 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함양을 도울 수 있고, 간호학생의 임상현장 적용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17,18].

최근 임상실습을 보완하기 위해 객관구조화술기평가 [19,20], 시뮬레이션기반실습교육[21-23], 멀티미디어 활용 사례기반학습[24] 등을 개발 운영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임상실습을 앞둔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실습교육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임상실습 이전에 기초적인 임상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기본간호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인 기초임상실습프로그램(Basic of Clinical Practice Program: 이하 BCPP)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BCPP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전공 기초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본 전공지식과 술기를 토대로 임상실습 준비를 위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BCPP를 개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BCPP 가 간호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2. BCPP 가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3. BCPP 가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초임상실습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임상실습을 앞 둔 경기도 소재 S 여자 대학 간호과 2학년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245명 이었다. 이 중에서 설문지 응답에 불성실한 17명이 제외된 최종 228명이었다.

2.3 BCPP 교육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초임상실습프로그램은 기본간호학 과정을 끝내고 임상실습을 앞둔 학생에게 2주간 1학점을 부여한 총 30시간의 필수교육과정이다.

프로그램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객관구조화 술기 평가(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이하 OSCE)가 포함된 핵심기본간호술기교육과 병원환경소개 및 진단검사 등의 임상실습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이론적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필수 간호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기본간호술기교육은 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20개의 항목 중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활력증후 측정, 간지혈당측정, 무균술, 투약(정맥주사, 피내주사), 단순도뇨, 수혈간호로서 7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각 술기항목은 실제 임상과 연결되는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교육 시 제시하였고 이에 맞춰 술기를 적용하도록 연습과 평가를 진행하였다.

주사 술기가 포함된 투약간호 경우 STEPS 모형을 활용하였다[25]. 먼저 사전지식을 이끌어내고자 투약간호의 중요성 설명 후(set), 교수자는 설명 없이 시범을 보여주었다(tutor demonstration). 이어서 설명을 하면서 제차 시범을 보여주었고(explanation), 시범 후 학생들이 연습을 하는 동안 교수자는 피드백을 주었고(practice), 마

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집중하여 연습을 할 시간을 주었다(subsequent deliberate practice).

교육 진행 방법은 하나의 세션에 약 25명으로 각 반은 4~5개 조로 나누어졌고 4시간 동안 이론 및 술기 시범 1시간, 조별 실습 1시간 30분 및 시나리오에 따른 핵심간호술기 평가가 1시간 30분으로 배정되어 진행되었으며 각 세션에 교수 1인과 실습보조원 1인이 배치되었다.

필수간호교육은 상황별 대상자 관리, 복장 및 실습규정, 간호정보조사지를 활용한 간호사정, 임상진단검사의 이해, 투약용량계산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교육 내용과 구성은 개발한 시나리오와 함께 임상 전문가와 간호학 실습전담 교수 및 기본간호학 교수의 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기초임상실습과정에 투입되는 교수들의 회의를 거쳐 완성하였다. 교육은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교수 8인이 각각의 내용을 맡아서 강의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

대학생의 학습역량관련 영역을 인지, 학습동기, 학습행동 영역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Lee 등 (2011)[5]이 개발한 학습역량 검사(learning competency test: LCT-CMB)도구 중에서 개발자의 허락을 구하고 학습동기 영역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습동기 영역은 우울, 시험불안, 학업스트레스, 자기결정성, 학습목표지향성 및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아주 그렇다(5)'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중 우울, 시험불안 및 학업스트레스는 점수가 높을수록 이들 정서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고, 자기결정성, 학습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는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 .74 이었다.

2.4.2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 (2004)[26]이 개발한 총 2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7개의 하위요인, 즉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및 객관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원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37 이었다.

2.4.3 임상수행능력 자신감(Clinical performance self-confidence)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은 활력징후, 수혈간호, 정맥수액 요법, 피내주사, 간이혈당 측정검사, 외과적 무균술, 단순 도뇨에 대한 자신감을 '매우 자신감이 없다'에서 '매우 자신감이 있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5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13년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중재 전 후에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각 연구도구는 개발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자료수집에 활용하였다. 설문지 배부 전 연구목적과 절차 및 연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다음 대상자로부터 이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참여에 동의한 학생은 자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중재 전과 후 시점에 대한 차이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82세이었으며, 종교는 48.7%가 있다고 하였고, 51.3%가 없었다. 대인관계는 75.5%(172명)가 매우 좋거나 좋다고 하였다. 간호학 전공 관련 특성으로 간호학 선택 동기는 높은 취업률 34.6%(79명), 적성 20.2%(46명), 부모님 혹은 지인의 권유 17.5%(40명), 기타(해외진출 및 봉사직) 10.5%(24명), 간호사의 좋은 이미지 10.1%(23명), 성적 7.0%(16명)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기초임상실습교육 과정의 효과

3.2.1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

학습동기 영역은 우울, 시험불안, 학업스트레스, 자기결정성, 학습목표지향성 및 자기효능감으로 는 중재 전·

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학습동기의 하위영역별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는 중재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t=-2.318, p=.021$), 우울($t=2.669, p=.008$)과 시험불안($t=3.083, p=.002$)은 중재 후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t=-5.964, p=.000$)은 중재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자기결정성과 학습목표지향성은 중재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Spec.	Frequency (%)	Mean±SD
Age		20.82±3.43
Religion	Protestant	61(26.8)
	Catholic	28(12.3)
	Buddhist	19(8.3)
	None	117(51.3)
	Others	3(1.3)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30(13.2)
	Good	142(62.3)
	Average	56(24.6)
	Bad	0
Determinants for major choices	Grade	16(7.0)
	Aptitude	46(20.2)
	High employment rate	79(34.6)
	Recommendation of others	40(17.5)
	Good nursing images	23(10.1)
	Others	24(10.5)

[Table 2] Differences of learning motivation

Spec.	Mean±SD		t(p)
	Pre-test	Post-test	
Depression*	25.03±3.37	24.58±3.31	-2.669(.008)
Test anxiety*	21.23±4.78	20.50±4.60	-3.083(.002)
Academic stress*	15.00±3.79	15.41±3.55	2.318(.021)
Self-determination	18.00±3.39	18.09±3.66	.515(.607)
Learning goal orientation	14.73±2.24	14.86±2.23	1.130(.260)
Self efficacy	15.72±2.62	16.48±2.64	5.964(.000)

* Reverse coded item

3.2.2 비판적사고(Critical thinking)

BCPP 적용 후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는 중재 전·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1.520, p=.130$). 하위영역 중 체계성($t=-2.581, p=.010$), 건전환회의성($t=-2.882, p=.004$) 및 객관성($t=-3.663, p=.000$)이 중재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of critical thinking

Spec.	Mean±SD		t(p)
	Pre-test	Post-test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22±.57	3.26±.56	-1.514(.131)
Prudence	3.30±.57	3.33±.55	-1.409(.160)
Self-confidence	3.26±.53	3.31±.52	-1.769(.078)
Systematicity	2.95±.63	3.03±.57	-2.581(.010)
Intellectual/fairness	3.65±.51	3.64±.50	.506(.614)
Healthy skepticism	3.15±.51	3.32±.70	-2.882(.004)
Objectivity	3.76±.54	3.94±.58	-3.663(.000)
Critical thinking	3.33±.32	3.35±.35	-1.520(.130)

3.2.3 임상수행능력 자신감(Clinical performance self-confidence)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중재 전 ‘자신감이 있다’인 3점 이상인 항목은 간이 혈당 측정검사 한 개의 항목이었으나, 중재 후는 활력징후, 의과적 무균술, 단순도뇨 세 항목에서 3점 이상이었다[Table 4].

[Table 4] Differences of clinical nursing competence

Spec.	Mean±SD		t(p)
	Pre-test	Post-test	
Vital sign	2.72±.05	3.13±.43	-11.589(.000)
Medication nursing	2.05±.57	2.81±.57	-19.737(.000)
Blood sugar test	3.07±.66	3.46±.53	-8.527(.000)
Aseptic technique	2.69±.60	3.16±.57	-9.785(.000)
Nelaton catheterization	2.23±.66	3.06±.58	-15.056(.000)
Clinical nursing competence	25.26±4.00	30.67±3.78	-20.837(.00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내

기초임상실습 프로그램이 학습동기, 비판적 사고 및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학습동기 영역 중 학업스트레스는 감소한 반면 우울, 시험불안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자기효능감이 중재 후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학습동기의 중요한 속성으로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에 어떻게 접근하고 참여하는지를 결정하는 의도와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인지적 판단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5,6]. Han 등 (2011) [5]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며 이는 학업성취 정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재 후 자기효능감이 상승된 것은 프로그램 각 실습 세션에서 임상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는데 이는 학습태도를 향상시키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시나리오 기반 기초임상실습 프로그램이 첫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생을 간접적인 임상상황에 노출 시킴으로써 직·간접경험을 통한 실제적인 간호수행 능력을 촉진할 수 있었다고 본다. 시나리오 기반 학습프로그램이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24,27]와 같이 본 연구에 적용된 기초임상실습프로그램 역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면서 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결정성이나 학습목표지향성에서는 중재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결정성 및 학습목표지향성은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방향 짓고 유지시켜 학업성취감을 높이는 중요 요인으로, 스스로 지각하는 자율성, 능력에 대한 만족, 학습 환경과의 유대감 등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5-7]. 학습동기를 측정 한 선행연구가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중재프로그램인 BCPP의 짧은 운영기간이 간호학생의 학업에 대한 성취감과 자율성 및 학습자-교수 간의 유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이었다고 본다. 이에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고 학습자간 협동 작업을 활용하는 등 자율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습동기 영역에서 우울($t=-2.669, p=.008$) 및 시험에 대한 불안감($t=-3.083, p=.002$)은 프로그램 전보다 후에서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전 간호학생

이 경험하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지식 및 술기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기 때문이며 가상이지만 임상을 제한한 시나리오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과정에서 느끼는 우울, 불안감과 같은 요인은 간호학생의 학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8,28]. 이를 위한 방법으로 비판적 사고력 향상[28], 현장실무를 반영한 사전 실습교육의 강화[9,16], 기본간호학실습실 개방에 의한 사전학습[29]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비판적 사고는 하위영역 가운데 체계성, 건전한 회의성 및 객관성 영역에서 중재 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 비판적 사고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임상입문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중 체계성과 지적열정/호기심 영역을 상승시킨 Song 등 (2011) [15]의 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영역인 체계성 경우 OSCE를 활용한 교육에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비판적 사고력 향상의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비판적 사고는 기술 및 정의적 특성 등으로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15,17,30,31]. 비록 본 프로그램이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 2주라는 짧은 운영기간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정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첫 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입문교육에서 간호 술기의 습득 뿐 아니라 임상에서의 상황적 문제를 해석하고, 평가 및 추론할 수 있는 과정을 배우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비판적 사고 교육은 비판의 과정을 훈련하는 것으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 학년 혹은 대학 전 과정동안 습득해야하는 과제일 수 있으므로 장기간의 교육전략이 요구된다[15,31,32]. 표준화환자 또는 비디오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임상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동료와의 상호작용 및 자아성찰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장기간 적용한다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학생 스스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태도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BCPP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실습을 앞둔 간호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간호학생의 임상에서의 간호수행 자신감을 상승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8,14,15,18]. 임상실습 교육은 실제 환자를 경험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BCPP 역시 학생 모두에게 빠짐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과정을 통해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첫 임상실습 전 이루어진 가상현실에서 경험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임상실습프로그램(BCPP)은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학습 동기 중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CPP 교육과정에 동료 및 자아성찰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인 피드백 과정과 임상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각한 것을 표현하고 해결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을 가이드 할 수 있도록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및 운영기간을 좀 더 장기화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보강 한다면 학습동기와 비판적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임상실습 프로그램(Basic Clinical Practice Program: BCPP)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 비판적 사고 및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기초임상실습프로그램은 비판적 사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동기 영역 중 우울과 시험불안은 중재 후 상승한 반면, 학업스트레스는 감소하였으며, 자기효능감 역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또한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은 전 영역에서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간호학 실습 외에 기초임상실습 프로그램과 같은 교내 집중 실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진급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교내실습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체계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

제, 실습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단기간의 교육보다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 걸친 장기간의 교육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 J. Chang, Y. J. Chang, S. H. Kuo, Y. H. Yang, F. H. Chou,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nursing competence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 pp. 3224-3232, 2011.
DOI: <http://dx.doi.org/10.1111/j.1365-2702.2010.03593.x>
- [2] E. J. Lee, W. H. Jun, "Sense of coher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pp. 163-171,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63>
-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e core competency and nursing education learning outcomes, Retrieved September 3, 2013, from <http://www.kabon.or.kr/>, 2012.
- [4] K. W. Lee, J. C. Jeon, K. C. Hur, W. P. Hong, M. S. Kim, "Redesigning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for developing future Koreans' core competences". Research report. ORM 2009-20.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09.
- [5] K. Lee, E. Kim, J. Koh, C. Park, "Development of learning competence test for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cognition, learning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4), pp. 791-809, 2011.
- [6] Y. S. Han, S. Y. Hyun, J. G. Lee, H. C. Cho,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skill, motivati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2), pp. 153-172, 2007.
- [7] M. H. Lee, T. Y. Jung, "Examination of the learning motivational process model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4(1), pp. 77-99, 2008.
- [8] S. G. Forneris, C. Peden-McAlpin, "Evaluation of a reflective learning intervention to improve critical thinking in novice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7, pp. 410-421, 2007.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7.04120.x>
- [9] L. Croxon, C. Maginnis, C. "Evaluation of clinical teaching models for nursing practi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9, pp. 236-243, 2009.
DOI: <http://dx.doi.org/10.1016/j.nepr.2008.06.004>
- [10] K. A. Shin,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19(1), pp. 46-56,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1.046>
- [11] J. H. Song, M. W. Kim,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pp. 251-264,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51>
- [12] M. H. Sung,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ti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7(1), pp. 90-98, 2010.
- [13] J. Y. Lee, Y. M. Lee, S. Y. Pak, M. J. Lee, Y. H. Ju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pp. 606-616,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606>
- [14] M. H. Cho, I. S. Kwon,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2), pp. 143-154, 2007.
- [15] K. Song, H. J. Park, H. A. Yeom, J. E. Lee, G. E. Joo, H. J. Kim,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new educational program, introduction to clinical nursing, for third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3), pp. 322-333,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3.322>
- [16] S. H. Song, S. G. Kim, "The effect of introductory clinical practice education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3), pp. 85-94, 2012.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2.6.3.085>
- [17] S. H. Park, "The effects of multimedia case-based learning on pre-service teachers' critical thinking and practice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4(5), pp. 19-28, 2011.
- [18] J. Thurman, S. E. Volet, J. R. Bolton, "Collaborative, case-based learning: How do students actually learn from each other?". *Journal of Veterinary Medical Education*, 36, pp. 297-304, 2009.
DOI: <http://dx.doi.org/10.3138/jvme.36.3.297>
- [19] J. Yoon, K. j. Kim, M. S. Choi, "The effects of OSCE appl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pp. 273-284,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73>
- [20] M. H. Han, S. S. Han, M. R. Eom, "Development of OSCE module and running the examination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 pp. 107-116, 2005.
- [21] D. H. Kim, Y. J. Lee, M. S. Hwang, J. H. Park, H. S. Kim, H. G. Cha, "Effects of a simulation-based integrated clinical practice program(SICPP) o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clinical competence and critical thinking in a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3), pp. 499-509,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3.499>
- [22] M. R. Eom, H. S. Kim, E. K. Kim, K. Y. Seong, "Effects of teaching method using standardized patients on nursing competence in subcutaneous injec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 pp. 151-160, 2010.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0.40.2.151>
- [23] Y. H. Kim, K. S. Jang, "Effect of a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cardio-pulmonary emergency care knowledg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problem solving process in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 pp. 245-255, 2011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1.41.2.245>
- [24] M. S. Yoo, J. H. Park, S. R. Lee, "The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using video 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learning motiva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6), pp. 863-871, 2010.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0.40.6.863>
- [25] J. A. Dent, R. M. Harden, *A practical guide for medical teachers*. 3rd. philadelphia: Churchill Livingstone: pp. 92, 2009.
- [26]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4.
- [27] H. S. Kwak, S. H. Jang, "The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program for scientific problem solving".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28(3), pp. 340-351, 2009.
- [28] S. Kim, Y. K. Jang, S. H. Park, S. H. S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pp. 339-347,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337>
- [29] Y. M. Seo,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pp. 25-33,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25>
- [30] Y. S. Bae, S. H. Lee, M. H. Km, K. S. Sun, "Effects of PBL(problem-based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1(2), pp. 184-190, 2005.
- [31] M. A. Kaddoura, "The New graduate nurses' perceptions of the effects of clinical simulation on their critical thinking, learning, and confidence".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41(11), pp. 506-516, 2010.
DOI: <http://dx.doi.org/10.3928/00220124-20100701-02>
- [32] S. G. Bae, Argument and argumentation: in the light of critical thinking education, *A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42, pp. 151-183, 2011.

서 인 순(In-Soon Seo)

[정회원]



- 199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89년 9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치매환자 및 가족

오 수 민(Su-Min Oh)

[정회원]



- 2001년 2월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보건교육(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8년 3월 ~ 2014년 2월 : 경기도 간호사회 교육위원
- 2004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최 동 원(Dongwon Choi)

[정회원]



- 199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9월 ~ 2014년 2월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학, 노인간호학, 만성질환환자간호, 간호교육

박 희 옥(Hee-Ok Park)

[정회원]



- 2001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2012년 2월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2년 9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인적자원관리, 간호의 질관리, PBL

마 예 원(Rye-Won Ma)

[정회원]



- 200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노인건강, 낙상 및 환자안전